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http://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         |       |                    |
|---------|-------|--------------------|
| 주 임 신 부 | 정 재 준 | 사도요한               |
| 보 좌 신 부 | 강 인 석 | 요셉 (청년부)           |
|         | 박 경 석 | F.하비에르 (유·초·중·고등부) |
| 전 교 수 녀 | 정 은 자 |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
|         | 김 미 리 | 한나 (원장)            |
|         | 정 선 아 | 에블린 (유·초등부)        |
| 꿀 벌 유치원 | 최 향 숙 |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
| 요셉어린이집  | 김 아 람 | 베로니카 수녀            |
| 총 회 장   | 황 태 영 | 소화데레사 수녀           |
| 연령회 총무  | 옥윤필   | 프란치스코              |
|         |       | 마티아 010-5117-5564  |

## ● 알 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재개 지침
  - 재개일 : 8월 9일 ~ 당분간
  - 참례 가능 신자 : 본당 신자, 공간별 10%
  - 미사 후 성체 분배 없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 시 : 09월 04일 / 오전 0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영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09월 06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       | 토요일<br>19:00 | 새벽<br>06:30 | 교중미사<br>10:30 | 주일 낮<br>12:00 | 주일저녁<br>19:00 |
|-------|--------------|-------------|---------------|---------------|---------------|
| 08/29 | 1~5 구역       | 6~11 구역     | 12~15 구역      | 16~20 구역      | 21~24 기타구역    |
| 09/05 | 6~11 구역      | 12~15 구역    | 16~20 구역      | 21~24 기타구역    | 1~5 구역        |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 십자 성호경의 의미

-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하는 기도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를 상기
-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냄

##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주일(09/05)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      |      |     |      |
|------|------|-----|------|
| 국수잔치 | 쉽니다. | 청 소 | 14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08월18일 ~ 08월24일)

|       |                                 |
|-------|---------------------------------|
| 교 무 금 | 5,862,000원                      |
| 주일헌금  | 2,963,100원                      |
| 시설헌금  | 조천호10만원                         |
| 감사헌금  | 오희훈10만원 김숙자 5만원 최남준10만원 서만심 6만원 |

##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 월일    | 해 설 | 독 서     |
|-------|-----|---------|
| 08/29 | 이인옥 | 김덕영 정연희 |
| 09/05 | 이영민 | 최승일 손정주 |

## ● 성체 분배자 명단

| 월일    | 토요일 | 06:30 | 10:30 |     | 12:00 |
|-------|-----|-------|-------|-----|-------|
| 08/29 | 최승일 | 박승환   | 오광운   | 박형순 | 김인기   |
| 09/05 | 최창열 | 박용환   | 최상남   | 최석준 | 박승환   |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67.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밝게 빛나는 표상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우리가 어떤 근본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 줍니다. 많은 고통과 상처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택은 강도들의 편이나 길가에 쓰러진 사람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이들의 악함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들은 배척의 사회가 건설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켜 공동선을 이루게 합니다. 동시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인간 현실의 피할 수 없는 요구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경계하게 해줍니다.

68. 분명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추상적 이상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사회적 도덕의 기능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 특징을 우리에게 밝혀 줍니다. 곧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달성되는 총만함을 위하여 빛어 졌습니다. 고통 앞에서 무관심한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삶의 길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고통을 접하고 분노하며 우리의 안락한 고립에서 벗어날 때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존엄성의 의미입니다.

### 되풀이되는 이야기

69. 이 비유는 단순하고 직선적이지만, 우리 각자가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통하여 점차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겪는 내적 투쟁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단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상처 입은 사람과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상처 입은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길가에 쓰러져 고통받는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것은 모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계획을 결정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지 아니면 멀찍이 지나쳐 가는 무심한 행인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시야를 넓혀 우리의 역사와 세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 비유의 등장인물과 같았거나 또는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친 사람, 강도들, 멀찍이 지나가는 사람들, 착한 사마리아인이 지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70. 길에 쓰러진 비참한 사람의 고통을 마주친 이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 사이에 있던 차이가 어떻게 완전히 변화되는지가 흥미롭습니다. 더 이상 유다인과 사마리아인, 사제와 상인으로 구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곧 고통을 떠맡는 사람과 멀찍이 지나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굽혀 쓰러진 이를 알아보는 사람과 눈을 돌려 서둘러 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쓴 여러 가면과 겉치레와 변장이 벗겨집니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몸을 굽혀 서로 돕는 책임을 맡을 것입니까? 이는 현재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택은 절박한 것이 됩니다. 이 순간 강도가 아닌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리고 멀찍이 지나쳐 가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를 다친 사람 또는 다친 이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